■ 지방선거 핫코너

장원섭·박웅두 '무상교육' 3대 공약 제시

장원섭(왼쪽)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박웅두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2일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복·학습준비물 지원 등 '무상교육' 3대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무상교복 지급, 학습준비물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 같은 무상교육은 지역 학부모들의 염원이자, 자치단체와 국가가 해야할 의무임에 따라 정부 역시 무상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을 더는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이어 "무상교육 운동 10년의 결실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시켜 온 민노당의 저력과 시·도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무상교육의 시대를 두 후보가 반드시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환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사립 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공·사립간 양극화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 사립 유치원 교원의 평균 임금이 110만원 수준으로 공립의 61%에 불과하다"며 "담임수당 등을 현실화해 사립 유치원 교원이 유아 공교육 담당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사립 유치원 교원들에게도 공립과 동일하게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화 남양건설 협력사와 간담회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남양건설 260여 개 협력사 대표들과 가진 유동성 자금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사 대표들은 "긴박한 유동성 자금 관련 은행권이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아 앞으로 줄도산 사태에 놓여 있다"며 "힘 있는 한나라당 정 후보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소통역할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후보는 "최선을 다해 협력사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찬용 "낡은 정치 바꾸는 선거혁명을"

정찬용 무소속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 "민주당의 구식정치와 낡은 정치가 광주정신과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과정은 낡은 정치의 종합판을 연출하는 등 광주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의 명령과 단합된 선거혁명을 통해 광주를 바꾸고 MB정권을 심판해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고 광주의 새역사를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완 "미소금융재단 설립, 서민 지원"

이병완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1천억 원 규모의 광주지역 미소금융재단(micro bank)을 설립해 지역 밀착형 저소득층 창업과 서민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경제는 제2의 IMF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광주지역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와 광주은행 등의 출연을 유도하고 중앙 미소금융재단 업무를 위임받은 지역 미소금융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신 "농·축산물 구입 쿼터제 운영"

유재신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2일 "도시 근교농업이 발달한 광산구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소득 확대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 등과 협약을 추진, 농·축산물 구입 쿼터제를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광산구 농촌지역은 각종 과채류 중심의 근교농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판매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산구에 입점한 대형마트들과 가칭 '지역 농·축산물 구입 쿼터제' 협약을 체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순천시장 예비후보 3명 조보훈 단일화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 나선 조보훈(사진), 이은, 구희승 예비후보가 조보훈 후보로 단일화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민주당 순천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조보훈 예비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3인의 후보들은 정책연대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정원박람회 사업, 구도심 활성화, 광양만권 통합, 일자리 창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뜻을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호 "쓰레기 재활용으로 처리 비용 절감"

최영호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2일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남구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교육문화 예산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남구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다"면서 "연간 62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 교육과 문화관련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영체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곽영체 전남도의원(강진군 제1선거구) 예비후보는 12일 "강진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초·중·고교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전남도·도교육청, 강진군이 5대 5 분할 방식으로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수업준비물 지원비 현실화 등 무상교육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실종자 가족 함미 이동 동의 인양 급피치

수중 노출 부문 그물망 설치…시신 유실 등 감수키로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12일 오후 침몰 사고해역의 함미 부분을 백령도 연안 방향으로 이동시키기로 민간 인양업체와 합의한 것은 더 이상 인양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종자 가족들은 물살이 약해지는 '조금' 기간이었던 지난주 선체에 체인을 연결하는 군과 민간 인양업체의 작업에 조만간 함미 부분이 인양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좋지 않은 기상여건으로 사실상 금주 중에는 인양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군 전망이 나오자 함미 부분의 연안으로 이동에 뜻을 모았다.

함미를 수심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예인 장비만 피항시킬 경우 함미에 결박해놓은 체인 2개를 모두 끊어야 하고, 이럴 경우 다시 크레인에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에만 적게는 5일에서 7일까지 소요된다는 점이 가족들의 이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실종자 가족대표들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 좋아져 다시 인양작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상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속한 인양작업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가족협의회 이정국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침몰해역의 기상악화로 작업 진척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오후 2시30분부터 실종자 가족 46명 대표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선체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우려를 감수하더라도 함미를 수심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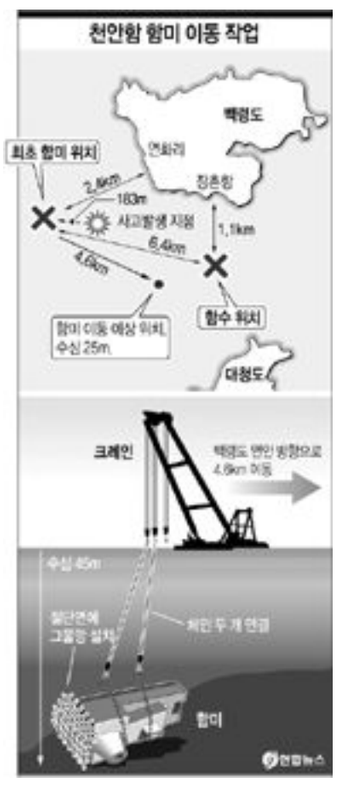
일부 가족들이 유실과 안전 등 문제를 지적했지만 인양업체로부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시신 유실 등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실종자 가족이 감수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이 대표는 "뻘에 박혀 있는 함미 스크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중 노출부분은 그물이 설치돼 있어 괜찮다"며 "그러나 파공위치가 함선 밑바닥이고 함미 이동 가정에서 조류에 등에 의해 유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인간 능력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실 우려는 수심 45m인 현재 침몰 해역에서 함미를 인양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이를 감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민간 인양업체는 함미 이동시 안전 문제의 경우 함체를 결박한 2개의 체인이 1개당 80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선체를 크레인에 걸어 이동하더라도 빠른 조류 등으로 인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족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미 부분이 침몰 지역보다 수심이 낮고, 조류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곳으로 이동됨에 따라 앞으로 인양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밤 함미 인양 가능성에 대해 "체인 2개로 (연안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안전을 고려해 체인을 한개 더 건 다음 인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오늘 당장은 함미를 받쳐줄 바지선이 (함미가 이동되는 해역으로) 따라오지 못해 인양이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로호 2차 발사 준비 본격 착수 나로호 상단과 1단에 이어 지난 8일 과학기술위성 2호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나로우주센터로 이송이 완료됨에 따라 나로우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정부 차원의 종합점검을 하고 있다. 나로호 2차 발사일정은 오는 19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나로호 1단 점검 모습〉 /연합뉴스